스위스 한달살기.

취리히 한달살기 아이템 10 가지

디지털 노마드와 워케이션 목적지
여행 크리에이터들이 체험한 취리히 한달살기
이들의 친절한 Q&A
취리히 너란 도시
시간 갖고 알아간다면

'제주 한달살기'를 필두로 시작된 장기 여행 트렌드는 최근 국내 여러 관광지로 관심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 '디지털 노마드'나 '워케이션'이라는 형태로 장기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들을 위한 산업도 발전하는 중이다.

지난 코로나 시대의 한복판이었던 2020 년 가을, '베드 앤 뷰로(Bed 'n' Bureau)'라는 숙박 테마를 론칭한 바 있는 스위스 관광업계는 코로나 사태에 부상한 재택근무와 이로 인해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는 탄력적 근무 방식이 여행 트렌드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인식하고, 디지털 노마드 및 워케이션, 그리고 장기 여행자들을 위한 서비스 및 아이템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코리빙(Coliving)이나 서비스형 아파트(Serviced Apartments)라는 테마의 숙박 업체가 스위스 대도시를 중심으로 생겨나고 있는 중이다.

스위스에서도 취리히는 전통적으로 비즈니스 여행자가 많은 도시로, 그만큼 여행 중에 업무 처리하는 게 편리한 곳이다. 마침 최근 취리히에서 한달살기를 체험하고 온 여행 크리에이터들이 그들의 경험을 스위스정부관광청 콘텐츠 허브 사이트를 통해 공유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숨훈커플과 이종범 여행작가가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취리히에서 한 달 동안 머물며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준비물, 숙소, 관광지, 액티비티를 비롯해 여러 유용한 팁을 소개한다.

숨훈커플의 취리히 한달살기
https://swisshub.myswitzerland.com/article/스위스-취리히-커플-한달살기-qa-여행-팁-추천-관광지/

이종범 여행작가의 취리히 한달살기
https://swisshub.myswitzerland.com/article/스위스-취리히-혼자-한달살기-qa-준비물-추천-피크닉/

취리히 체험 아이템 10 가지

취리히에서 여유 있게 머물며 한 도시를 보다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1) 호숫가 산책로, 공원, 그리고 차이나 가든

여름 내내 호수 저지대 분지 인근 그린벨트에는 보고 즐길 거리가 많다.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 수영을 하는 사람들, 주얼리 판매상, 그리고 거리의 예술가들이 어울려 다채로운 분위기를 만든다. 호숫가 산책로 끝자락에 등장하는 취리히호른(Zürichhorn)에는 취리히의 자매도시인 쿤밍(Kunming)이 선물한 차이니즈 가든(Chinese Garden)이 있다. 이곳에는 레스토랑 레이크 사이드(Restaurant Lake Side) 등 호수를 보며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들과 비어가르텐(Biergarten), 그리고 생선 전문 식당이 자리하고 있다. 티펜브룬넨(Tiefenbrunnen) 호숫가에서 페달로(pedalo)를 대여해 취리히에서의 잊지 못할 모험의 시간을 보내봐도 좋다.

2) 스탠드 업 패들링(Stand-Up Paddling)

취리히에서는 최근 SUP 가 로컬들 사이에 엄청난 인기다. 제바드 우토케(Seebad Utoquai)를 찾아가면 스탠드 업 패들을 체험해 볼 수 있다. 3-4m 길이의 보드에 서서 노를 저으며 아름다운 취리히 호수를 유유자적하게 즐길 수 있다. 처음 배우는 것도 어렵지 않아 관광객들도 쉽게 도전해 볼 만하다.
취리히를 새로운 각도로 탐험할 수 있는 SUP 가이드 투어도 있다. 취리히의 역사 깃든 명소를 물에서 발견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패들링 보드에 서서 말이다. 참가자들은 스탠드 업 패들링을 먼저 배우고 난 뒤, 물길을 따라 취리히 도심의 흥미로운 명소를 둘러보게 된다.

3) 제바트 엥에(Seebad Enge)와 호숫가 사우나

취리히 호수에 두 개의 널찍한 뗏목 같은 구조물이 떠 있는데, 혼성 및 여성용 풀장이 되어준다. 두 풀장 모두 호수로 뛰어들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대단한 알프스 파노라마도 선사한다.
뷔르클리플라츠(Bürkliplatz) 광장 근처에 있는 제바트 엥에는 취리히를 가장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곳 중 하나다. 호수 수영을 할 수 있는데, 수평선 너머 알프스가 펼쳐지고, 그릴과 샐러드를 제공하는 노천 바도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킨다. 전통 마사지, 요가 클래스, 호숫가 사우나는 완벽하면서도 독특한 체험을 선사한다. 사우나는 겨울에도 운영하는데, 사우나를 하다가 4-6 도 밖에 안되는 차가운 호수 물에 뛰어드는 짜릿함도 즐길 수 있다.

4) 취리히의 리도(Lido) 라운지

리마트 강에는 여성 전용 수영장이 있다. 낮에는 여성 전용 수영장이지만, 저녁이 되면 트렌디한 “맨발 바”로 변신한다. ‘리도’는 수영장을 뜻한다. 보통 강이나 호수로 연결되어 있다. 역사가 깃든 여성 전용 리도는 구시가지 한복판, 그림 같은 풍경 속에서 여성들끼리 수영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저녁이 되면 남성들에게도 문을 열고 바로 변신하는데, 스위스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노천 바로 꼽힌다. 잊지 못할 취리히 구시가지의 풍경 속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슈트트하우스케(Stadthausquai)에 수영장이 있고, ‘맨발 바’라는 뜻의 바 이름은 바르푸스바(Barfussbar)다. 수영장 이름은 ‘여성 수영장’이라는 뜻의 프라우엔바디(Frauenbadi)다.

5) 취리히(Zürich)의 디자인 라인, 4 번 트램

트램이 명물인 도시, 취리히에서도 꼭 한 번 타봐야 할 트램이 있다. 바로, 4 번 트램이다. 취리히 호수 북쪽 면에 자리한 티펜브룬네(Tiefenbrunnen)에서 시작해, 오페라하우스(Opernhaus), 벨뷰(Bellevue), 시청사(Rathaus), 첸트랄(Central), 중앙역(Bahnhofquai/HB)를 지나 취리히 서부(Zurich West)로 향해 에셔비스광장(Escher-Wyss-Platz), 쉬프바우(Schiffbau), 토니-아레알(Toni-Areal) 등 옛 산업지대를 복원해 각종 문화공간으로 만든 장소들을 지나 알트슈테텐 북역(Bahnhof Altstetten Nord)까지 가는 노선이다. 취리히의 옛날과 현대를 한꺼번에 둘러볼 수 있고, 그 둘이 만나 어떻게 혁신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했는지, 취리히의 정신을 고스란히 담아볼 수 있는 노선이라 특별하다. 파빌리옹 르 코르뷔지에(Pavillon Le Corbusier), 모노클(Monocle) 숍 & 카페, 디자인 박물관(Museum für Gestaltung), 임 비아둑트(Im Viadukt), 프라이탁(Freitag) 타워, 디지털 아트 박물관(MuDa)을 노선에서 찾아볼 수 있다.

6) 취리히(Zuerich)의 디자인 박물관, 리트베르그무제움(Rietbergmuseum)

리트베르그(Rietberg) 박물관은 스위스에서 유일한 비유럽권 예술을 다루는 박물관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의 다양한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다. 전 세계의 예술적인 표현이 놀라울 만큼 다양한 형식으로 드러나는 전시를 관람할 수 있으며, 먼 문화와 종교, 세계의 다른 관점에 대해

뛰어난 통찰력을 접할 수 있다. 문화를 발견하는 스릴 넘치는 여정을 기대해도 좋다. 초록의 정원과 고풍스러운 건물은 산책을 더욱 경쾌하게 만들어 준다.

7) 리마트-우퍼베그(Limmat-Uferweg)

취리히 횡(Höngg)에서 시작하는 순환 루트로, 리마트 강을 따라 도시를 벗어나 고요한 자연 속으로 이어진다. 물가를 따라 이어지는 루트는 곧, 베르딘젤(Werdinsel) 섬을 건너고, 클로스터 파(Kloster Fahr) 수도원을 지난다. 진정한 휴식을 도심 근처에서 즐길 수 있다. 강가의 식물과 굽이진 나무, 초록의 들판과 밭이 일상에서 확연히 벗어났다고 말해준다. 특히 베르딘젤 섬은 인기 있는 곳으로, 여름에는 수영을 하기 위해 많은 현지인들이 찾는다. 베네딕트회 소속의 파 수도원도 한 번쯤 찾아볼 만한데, 물가 조용한 자리에 있다. 여러 종류의 식물, 널따란 벌판과 초록 들판이 있는 청정 자연의 광활한 뷰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운터렝슈트링엔(Unterengstringen)에서 다리를 건너 강 반대편으로 갈 수 있다. 리마트 강을 따라 양방향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코스로, 쉐넨베르트(Schönenwerd)에서 시작해 취리히 횡까지 다시 한번 물가를 따라 절경의 하이킹을 즐길 수 있다. 루트 상에 중간중간 수영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여럿 등장한다. 총거리는 15km 고, 소요시간은 약 4 시간이다. 오르막은 80m 로, 꽤 평탄한 길이다.

8) 취리히의 뒷산 BBQ, 위틀리베르크(Üetliberg)

취리히에 자리한 해발고도 871m 의 나지막한 산, 위틀리베르크는 그 정상까지 운행되는 기차로 편하게 오를 수 있다. 취리히 중앙역에서 기차로 편하게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하이킹으로 숲을 거쳐 도심으로 돌아오는 여정은 취리히 시민들과 가족들에게 인기 코스다. 25 년 전에 이 산 정상에 게스트 하우스를 겸한 스파 리조트가 생겼는데, 지금은 사계절 기막힌 절경을 선사하는 스타일리쉬한 호텔, 우토 쿨름(Uto Kulm)으로 변모하였다. 고소공포증이 없다면 호텔 앞에 위치한 72m 의 전망대 타워에 올라볼만하다. 취리히 도심과 호수, 알프스의 거대한 파노라마가 한눈에 들어온다. 위틀리베르크 정상에서 폴렌바이드(Folenweid), 발데렌(Balderen)을 지나 펠젠에그(Felsenegg)까지 파노라마 하이킹 트레일이 이어져 있는데, 하이킹로를 따라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테이블과 바비큐를 할 수 있는 그릴이 마련되어 있다. 실제로 취리히 로컬들이 가족단위로 바비큐를 즐기러 찾는 곳이기도 하다.

9) 취리히(Zürich) 피셔스 프리츠(Fischer's Fritz)

취리히 호반에는 피셔스 프리츠라는 캠핑장이 있다. 취리히의 호수 풍경이 펼쳐지는 너른 잔디밭에서 느릿느릿한 한때를 보내기 좋은 곳이라 로컬들에게 인기다. 이곳에는 캠핑장도 마련되어 있는데, 바비큐 시설도 설치되어 있다. 캠핑을 하는 사람들은 물론, 방문자들도 입장료만 내면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데, 바비큐 뿐 아니라, 비치 발리볼, 스탠드 업 패들 서핑, 웨이크 보딩, 트램펄린, 카누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유료로 즐길 수 있다.

10) 뷔르클리플라츠(Bürkliplatz) 위클리 마켓

뷔르클리플라츠 광장에서 열리는 장은 주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애정을 듬뿍 담아 "뷔르클리매애르트(Bürklimäärt)"라 부른다. 취리히에서 제일 사랑받는 마켓 중 하나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반호프슈트라쎄(Bahnhofstrasse) 끝자락에 있는 장에서는 풍성한 종류의 싱싱한 허브, 제철 및 근거리 재배 채소, 근교 농장에서 정성껏 만든 맛있는 특산품을 찾아볼 수 있다. 취리히 호숫가 옆에 있는 그림 같은 위치와 광장을 에워싼 웅장한 밤나무 덕분에 장터는 산책을 겸한 그림 같은 여행지로 전혀 손색이 없다.

자료제공: 스위스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